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제193호 - 창립 2020.6.28



길목교회
THEWAYNEWS

주후 2024.3.24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교사적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카페 테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사역자

담임목사 : 이길주
교육목사 : 권세진
교육전도사 : 전정민
사역자 :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 전정민
가야금 : 김고은
해금 : 이건명
베이스 : 장 천
피아노 : 정지혜
기타 : 조성권

홈페이지

theway.news



주일에배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 이길주 목사

입례송..... <주님을 찬양하라>..... **다같이**

♩ = 63 *p* Eb Ab Eb Bb Cm G Cm Bb Eb Ab Bb Eb

주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Ab Eb Bb Cm Ab Bb4 -3 Eb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성서 교독..... <종려주일>..... **다같이**

- (인도자)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 (성도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 (인도자)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 (성도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 (인도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 (성도들)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 (인도자)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 (성도들)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 (인도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 (성도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참회 기도..... <나,이웃,교회,나라,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산..... **다같이**

- (인도자)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함받았습니다.
- (성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 찬양 찬양팀과 함께
 사순절 특주 이건명 집사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말씀과 나눔

- 말씀 교독 <마태복음 21:1-17> **다같이**
 말씀 나눔 **다같이**
 묵상 기도 **다같이**
 응답의 찬양 **다같이**

♩ = 72
p F C Dm B♭ D G C F C Dm Gm C₃ F

사랑의나 눴있 는곳 에 하나님께 서 계시도 - 다
 2번 함께 부릅니다

- 말씀 기도 **다같이**

응답과 축복

- ✠ 감사 찬양 <감사하여라> **다같이**
 ✠ 결단과 축복 **다같이**

- (인도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주의 자녀 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다같이)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성경말씀 메시지

1-3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올리브 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지시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나귀가 매여 있고 새끼도 함께 있을 것이다. 줄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왜 그러느냐고 누가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보내 줄 것이다.” 4-5 이것은 일찍이 예언자가 다음과 같이 그려 낸 이야기의 전말이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의 왕이 오시는데 의연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짐 나르는 짐승의 새끼다.”

6-9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했다. 그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그 위에 자기 옷을 펼치자,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무리 가운데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 위에 자기 옷을 펼쳐 놓고 그분을 왕으로 맞이했다.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며, 그분을 환영했다.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면서 일제히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도시 전체가 동요했다. 사람들이 들떠서 물었다. “무슨 일이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11 행렬의 무리가 대답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이십니다.”

12-14 예수께서 곧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상점을 차려 놓고 사고파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다. 고리대금업자들의 가판대와 비둘기 상인들의 진열대도 뒤엎으셨다. 예수께서 다음 말씀을 인용하셨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그제야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가 생겼다. 그들이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다.

15-16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엄청난 일들을 보고, 또 성전에서 내달리며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는 발끈하여 예수께 따졌다.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물론 듣고 있다. 너희는 ‘내가 아이들과 아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찬양의 집을 꾸미겠다’고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17 예수께서 진저리를 내시며, 돌아서서 그 도성을 떠나셨다. 베다니로 가셔서, 그곳에서 밤을 지내셨다.

성경말씀 개역개정

[마21:1-17]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 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향 나무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6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겹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12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시고 13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도다 하시니라 14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15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16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17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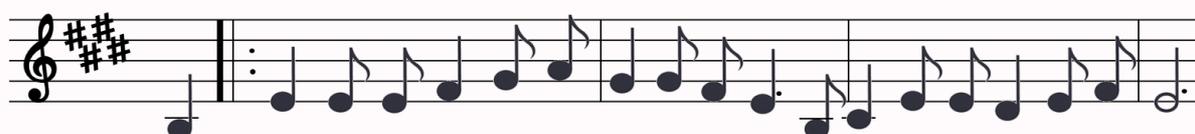
말씀묵상



감사찬양

감사하여라

E B⁷ E A B⁷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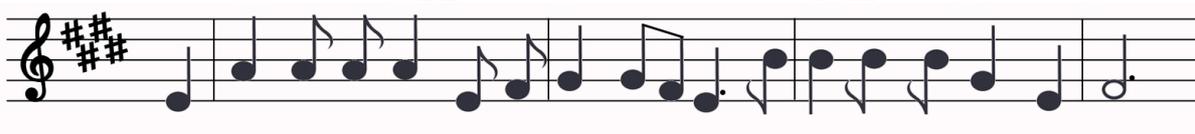
감 사 하여 라 영 원 한 주 님 께 그 의 선 하 신 행 위 를

E B⁷ E A B⁷ E



기 억 하 여 라 용 서 의 주 님 을 그 가 죄 를 사 하 셨 네

A Am E C#m F# B⁷



그 의 인 내 와 자 비 와 은 - 혜 측 량 할 길 이 없 네

E B⁷ E A B⁷ E



그 가 우리 의 죄 를 사 하 셨 네 와 서 주 께 경 배 하 세

교회안내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20 (10:30 커피타임시작)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2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목요일 오전 10:30~3:00
주일오후 프로그램	주일 오후 1:00~3:00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음악사역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사역 현금 계좌]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 가치추구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나눔질문

성도들과 말씀묵상나눔 시간을 가질때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십시오.

1.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내게 감동이 오는 부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정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느 주제든 어떤 내용이든 편하게 나누어주십시오.
2. 남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돼'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고 나누십시오.
3. 내가 말하는 시간이 소중하지만, 남이 말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말하는 시간만큼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이 말할때 다른 행동을 삼가고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4. 하나님이 예배 중 어떤 시간을 통해서, 혹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 들을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5. 오늘 나눔의 인도는 **핸드폰 번호 마지막 자리 숫자가 가장 큰 분이** 해주세요

[[묵상 참고 질문]]

-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사실이 제자들과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되었을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들의 행위를 보고 나누어보십시오.
-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일은 상징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수님의 예루살렘입성 사건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함께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며 나누어보십시오.



공동체소식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 아닌 우리의 삶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눔예배

오늘은 나눔예배로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가 능동적으로 주의 예배에 참여하며, 주님의 음성듣기를 사모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 뜻대로 사는 제자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년 구약 모세오경 성경통독

지난 3월4일(월)부터 시작된 **쉬운성경 <모세오경>** 성경통독이 온 성도의 참여가운데 잘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늘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이번주도 파이팅입니다!

사모공동체 사역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힐링과 나눔이 있는 모임을 소망하며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로 잘 쓰임받도록 기도해주세요.

인도: 권종신 사모 / 문의: iam@theway.news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4시 / 장소: 길목교회 (일산 정발산역 5분거리)

점심식사 섬김

4.28 - 장천, 장현주 집사 / 5월 - 김점순 집사 / 6월 - 권종신, 이길주 목사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실 때 함께 나누어주세요 ^^

길목교회 주중 사역

매주 화요일 - 기도모임

매주 목요일 - 청년 성경공부 / 줌 성경공부

매주 금요일 - 사모공동체 모임